

도, 새만금 정책발굴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도-전북연-전문가 역량 모아... 새정부의 새만금 개발 방향에 맞춰 정책발굴 등 집중 스마트수변도시 활성화·체류형 관광 콘텐츠 발굴·수질개선 대책 마련 등 논의 계획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논의를 위해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전문가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의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대학교수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올해 다양한 분야의 새만금 발전방안과 정책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은 그동안 실무형 전문가가 모여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대응논의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해 왔으나, 발굴된 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구체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분과를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워킹그룹 구성은 정책기획·개발, 산업·투자, 관광진흥, 수질·환경 4개 분과로 세분화하고, 새만금위원회·정책포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분과장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였다.

분과운영은 각 분과장을 중심으로 도, 전북연구원, 민간위원이 모여 선정된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 중심으로 분과를 운영하고, 성과를 도출한다. 중점 논의과제는 '스마트 수변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기업유치 방안 마련',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및 콘텐츠 발굴', '단기 수질개선대책 평가 대응'으로 선정했으며, 현안 이슈 발생 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새정부의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개발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워킹그룹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새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혜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사업은 30년간 이어온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며 "본 케도에 올라온 새만금 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의 역할을 강화해 내부개발 등을 위한 정책발굴과 새만금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동그라미 점방' 개관

도-지속가능발전협, 민관협력 환경활동 공동체 공간 조성

전북도와 전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역공동체 및 주민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문제를 조성하고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인 동그라미 점방을 조성하고, 지난 31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호상 도 환경녹자국장, 유해숙전북지속협상임대표, 김홍식 기업대표, 박희자 전북도의원과 인근 환경·교육 관련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했다.

특히, 지역 교육공동체 어린이들을 초대해 자원 배출 낚시 태양열을 이용한 가래떡·고구마 굽기 등 다양한 환경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그라미 점방'이라는 공간 이름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활동공간을 견학하고, 느낀 생각들을 모아 순수한 동심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이번 신촌점방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에서 권고한 17가지지속가능발전목표를 동그라미로 표현하

고, 지역사회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동네 점방과 같이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더해,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공동체 소통 공간이라는 뜻을 가졌다. '동그라미 점방'은 소규모 회상회의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교육실(공유주방)과 회의실 등을 갖춰,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환경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커뮤니티 및 교육 공간으로도 제용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유호상 도 환경녹자국장은 "지속 가능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동그라미 점방이 활발한 소통과 다양한 실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해숙 전북지속협 상임대표는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돼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소로 '동그라미 점방'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성공개최 위한 도내 대학과 협력 다짐

도내 대학-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업무협약 체결... 대회 홍보·동역자원봉사 700명 모집 등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오)는 지난 31일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원장 박재필), 우석대학교 국제교류실(실장 최재덕),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원장 김병기)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동역 자원봉사 모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 기간 동안 주로 출입국 지원, 종합안내소 및 각 경기장 등과 IMCA

이사 등 해외 VIP와 참가자들이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을 지원할 것이며, 봉사자는 7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동역 자원봉사는 '국제 스포츠대회의 꽃'이며,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패를 가르는 가능성으로 대회 기간 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대학교 외국어학과, 유학생 등의 동역자원봉사 모집을 통해 인력풀을 구축하는

한편, 기 협약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공공의교단,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2023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초의 생활체육 국제스포츠대회로 세계 각국에서 10,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 종합영상 퓨처파크 조성"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자공원묘지 부지에 대한 전주 종합영상 퓨처파크 조성'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1977년에 공원으로 조성된 효자공원묘지가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도시개발로 도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대표적인 기피시설이 위치해 있어 도시 확산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등 ▲종합놀이동산·영상물을 주제로 한 놀이시설 등 ▲민속촌에는 시대별 저가거리, 공방거리, 민속공연장 등 ▲영상산업 고도화/확대 산업단지, 특수목적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이 예비후보는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경우 영상산업으로의 전환과 확대, 관광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과 전주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피 대상이었던 효자공원묘지가 전주를 살리는 성공의 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화도시의 이미지도 만들어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전주시장 출마예정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지난달 31일 민생정책 발표를 통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전주지역 산모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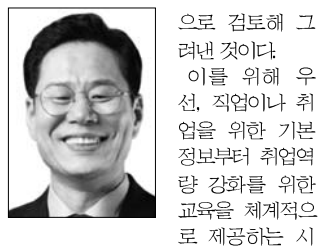


산후조리원을 선호하지만 이용료가 비싸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전주에 공공조리원을 설립해 최고의 시설을 50%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산모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시민 생애주기 일자리 전략, 혁신적 수립"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시민 생애주기 일자리 전략'을 혁신적으로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듯이 취업·전직 종합검진 시스템을 시행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으로 검토해 그려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직업이나 취업을 위한 기본 정보부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직무·직능별로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연결, 즉 효율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일자리 행정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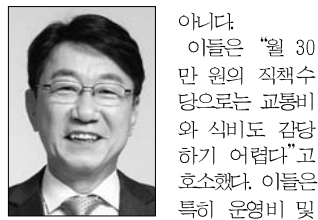
지난달 31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현장중심형 일자리 행정을 통해 시민 생애주기 일자리 전략을 수립한 뒤 생애주기별 진로·직업 설계 상담·컨설팅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전주누비기 일환으로 휴먼생생직업교육학원, (사)한국직업상담사 진흥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 예비후보는 또, 주기별로 취업·전직 종합검진 시스템을 시행하는 한편, 지역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전환 설계'를 실시해 업종 변경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위해 지원 강화"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문현답을 통해 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청했다. "현재 1개 단체당 운영비는 3,300만원,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2년째 동결상태"라며 9개 지회별 회원수를 감안해 차등인상에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운영비와 사업비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 여파로 중단된 월남전 파병 사망자 위령제도 올해 안에 다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후보는 지난달 31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복지증진을 목표로 ▲보훈수당 10만 원으로 인상 ▲운영비 및 사업비 현실화 ▲행정요원 최저임금 지급 ▲사무장 및 지회장 직책수당 현실화 등을 비롯한 보훈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보훈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보훈수당은 월 6만 원에 그쳐 최하위 수준이며 9개 단체 행정요원들의 경우 대다수가 계약직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다. 봉사자인 사무장과 지회장도 예외는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건고추·노지감자·생강... 내달까지 신청

전북도가 올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이런 신청 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이다. 노지감자와 생강은 도내 14개 시·군 모두 대상이며, 건고추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통합마켓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삼락농정 제값받는 농업 대표사업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왔다.

그 결과 품목 재배 농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차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유호상 기자

'농촌활동가' 자격제도 도입 방안 모색

도, 정책세미나 개최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전북형 농촌활동가 자격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달 31일 전북 삼락로컬마켓 세미나실에서 농촌활동가 분야 전문가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현장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으로 '전북형 농촌현장활동가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개최됐다.

특히, 정책세미나 좌장을 맡은 군장대 황민길 교수는 "전북형 농촌활동가 민간자격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의 설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도 농촌활동과정은 '직면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형 농촌활동가를 육성하지는 제안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향후 농촌활동가에게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소외계층에 총 2억원 상당 생필품 기부

전북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생필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생필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 박찬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김기문 중소기업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달식에서 전북도 1억원 등 총 2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유호상 기자